

“한국어 형태론 연구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합·분리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박혜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haejin85@snu.ac.kr

이 연구는 형태론 연구에서 어종(語種)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을 살피는 작업을 중심으로 단어에 대한 화자의 앎을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 언어 연구에서 화자의 앎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여쭙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구성하였습니다.

1. 발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능단위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운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음절 한자어를 분석하거나 조어하는 맥락에서 (물론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부 언종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자어 특유의 단어 형성 패턴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손보호대(손保護帶)
	㉡ 보수골무(保手골무)

<박혜진(2019),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위의 ㉠과 ㉡은 명명 과제에 대한 고등학교 학습자의 수행 결과(조어 결과)입니다. '칼질 시 손을 보호해 주는 도구'를 뜻하는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였는데 <손을 보호하다>의 의미를 위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반적인 국어의 형태 결합 순서와 다른, 한자어 특유의 결합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 화자가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3상)”을 초점화하는 형태론 연구라면 2음절 한자어에 대한 분석적 인식 결과 형성되었을, ‘언종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단어 형성 원리’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종을 아우르는 단어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2. 발표자님께서서는 논의의 말미에서 “개인차를 학문적으로 의미 있게 수용하는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13상).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바 ‘화자의 한자어 지식 정도’가 한자어 운용의 모습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되기에, 화자 간 한자어 지식 정도의 차이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는 단어 형성 교육에 한자어 사례들을 수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래 가지고 있

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해답의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표자님께서 "개인차를 학문적으로 의미 있게 수용하는 연구 설계"와 관련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3.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에 기원을 두고 있는바, 그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한자어 지식이 단어의 분석 및 생성에 관여하는 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어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긴 시간 국어교육의 논쟁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한자어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오신 발표자님께 한자어 교육 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평소 한자어 교육에 대해 생각해 오신 바가 있으시다면 가볍게라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학자인 제가 국어 현상을 연구하는 최종 목적은 늘 '교육적 구현'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연구를 하든 '학습자의 머릿속'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단어 및 형태소에 대한 화자의 앎과 인식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안소진 선생님의 연구들은 제가 가진 여러 질문들을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덕분에 '화자'를 연구의 중심에 둔다면 '교육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의 유의미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안소진 선생님, 그리고 토론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